

## 2024년 5월 열리는 연수 (1)

강의 제목	우리는 우리의 소설을	강사	작가 강석희
강의 소개	<p>선생님들께서 직접 쓰신 단편소설(200자 원고지 80매 내외)을 읽고 합평을 하는 강의입니다. 여름 한 철 소설을 쓰며 나와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어 주세요!</p>		
수강생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	<p>수업에서 사용하는 소설 창작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인 강의입니다. 작품을 직접 쓰고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.</p>		
강의 일시	<p>둘째 주 화요일, 5/7, 6/4, 7/9, 8/6, 20-22시</p>		
모집 인원	<p>12명</p>		
수강료	<p>13만원</p>		
과정	1회차 (5/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문우 자기소개 및 인사</li> <li>*소설과 소설쓰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</li> <li>*소설 창작 방법 미니 강의</li> <li>*합평 순서 정하기</li> </ul>	
	2회차 (6/4)	<p>*1조 합평</p>	
	3회차 (7/9)	<p>*2조 합평</p>	
	4회차 (8/6)	<p>*3조 합평</p>	

## 2024년 5월 열리는 연수 (2)

강의 제목	웹툰, 어떻게 읽을 것인가	강사	교수 양혜림
강의 소개	‘예술 작품’으로서의 웹툰이 아닌 대중서사매체로서 웹툰을 봅니다. 데이비드 버킹엄이 제창한 미디어 교육의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웹툰을 분석,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		
수강생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	특별히 없음 (단, 이전 회차에 함께 읽기로 결정한 작품은 읽어 오셔야 합니다. 작품은 최대한 수강생분들과 함께 선정할 예정입니다.)		
강의 일시	5/14, 6/11, 7/15, 8/13 20:00~22:00 (매달 둘째주 화요일이지만, 7월만 셋째주 월요일에 진행합니다.)		
모집 인원	20명		
수강료	10만원		
과정	1회차 (5/14)	오늘의 웹툰: 요즘 웹툰은 대체 왜 ‘그런’가 - 1990년대 말 웹툰이 주변문화로 발흥한 이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여러 변화가 있었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2010년대의 웹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음 - 각 시대별(1990년대 말, 2000년대, 2010년대, 2020년대) 웹툰의 특성과 대표작을 살펴보고자 함	
	2회차 (6/11)	미디어로서의 웹툰: 만화는 ‘저절로 읽어드리는 것’인가 - 콘텐츠로서의 웹툰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반면, 미디어로서의 웹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- 글과 그림의 복합양식 매체인 만화의 특성을 전제로, 웹툰의 미디어 언어를 살펴보고자 함	
	3회차 (7/15)	좋은 웹툰, 나쁜 웹툰: ‘불태워야 할’ 웹툰은 존재하는가 - 우리나라는 과거 어린이날마다 만화 불태우기 행사가 열렸을 만큼 전통적으로 만화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 기조가 강함 - 지난 20년간 유해성으로 기사화되거나 화제가 되었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	
	4회차 (8/13)	대중서사로서의 웹툰: 웹툰에 재현된 대한민국 - 오늘날 웹툰은 대표적인 대중서사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매체의 특성상 사회상을 매우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- 한국의 현재상, 한국인의 욕망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	

## 2024년 5월 열리는 연수 (3)

강의 제목	더욱 기묘해진 청소년문학의 세계	강사	평론가 오세란
강의 소개	- 최근 청소년문학의 경향을 샤머니즘 판타지, 짧은 분량의 이야기로 한국 대표 작가의 핵심 주제 파악하기, 이희영 작가의 작품을 사례로 최근 담론 파악하기, '식물', 비인간', '자연'을 통해 미래세계 상상하기 로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. - 문학 내적인 미학성과 사회심리학적 담론을 함께 살펴 보려 합니다.		
수강생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	아래 제시된 도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꼭 읽어야 할 책은 강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.		
강의 일시	네 번째 화요일 5/28, 6/25, 7/23, 8/27, 20:00-22:00		
모집 인원	20명		
수강료	10만원		
과정	1회차 (5/28)	1. 샤머니즘의 역습 - 샤머니즘이 판타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 <도서부 종이접기 클럽>(이종산), <우리는 마이너스2야>(전앤), <네임 스티커>(황보나), <거기, 있나요?>(이필원) 외 참고도서 <귀신들의 땅>(천쓰홍), <단명소녀 투쟁기>(현호정)	
	2회차 (6/25)	2. 짧은 이야기로 길게 이야기하기 - 최애 작가들의 핵심주제를 짧은 이야기로 만난다. <노을 건너기>(천선란), <이야기따위 없어져 버려라>(구병모), <원통 안의 소녀>(김초엽), <날씨부터 동그라미>(최영희), <유리와 철의 계절>(아말 엘모타르) 외 (창비, 소설의 첫만남 시리즈 중심으로)	
	3회차 (7/23)	3. 이희영 작품 구체적으로 읽기 - 이희영의 작품에는 최근 문학의 핫이슈가 모여 있다. <테스터>, <소금 아이>, <여름의 굴을 좋아하세요>, <챌린지 블루> 외	
	4회차 (8/27)	4. 망한 지구에서 살아남기 - 미래에 대한 극단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 <내 정체는 국가기밀>(문이소), <터널 103>(유이제), <네가 있는 요일>(박소영), <이끼숲>(천선란), <식물 없는 세계에서>(김주영), <2100년 12월 31일> 중 '아무 날도 아니어서'(길상효) 외	